

★ 여학생.
★ 농활대- 포스터, 생리대

★ 먼지와 먼지 닦기 페미니즘.

2015.06.30. PM2:00 <다시 봄> 30차 회의 @총여실

참여:
불참:
지각:
속가:

집행위원장	예지
재무국	건호
미디어홍보국	
국제캠퍼스국	민정
생활복지국	민경, 상희
정책국	예지

유니크 안전결제.

0. 생활나눔 & 체크

7/18일 1학기 집부들 환송회★ 요새 너무 덥다.. 세미나 은근 짝새다..

1. 활동 보고 및 상황 공유

6월 9일 (화)

- 신촌캠퍼스, 국제캠퍼스에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 퀴어 문화축제 관련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했습니다.
- 회장이 이한열 열사 추모제에 참여했습니다.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진행 상황 검토했습니다.

6월 10일 (수)

- [정책국][미디어홍보국]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 아미의 퀴어문화축제 관련 자보 훼손에 대한 입장을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6월 11일 (목)

- [미디어홍보국] 퀴어 문화 축제 지지를 위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변경했습니다.

6월 12일 (금)

- [생활복지국] 살림의료사협에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선생님을 섭외했습니다.
- [생활복지국] 농활 연기 공지를 받고, 농활 생리대 배부에 대해 재논의 했습니다.

6월 13일 (토)

- [미디어홍보국] 백양로에 총여학생회 1,2분기 활동보고 플래카드를 부착했습니다.

6월 14일 (일)

- 회장이 남학생 휴게실 설치에 대해 간호대학, 신과대학, 문과대학에 문의했습니다.
- 남학생 휴게실 설치 관련 내부 논의 진행했습니다.

6월 17일 (수)

- [생활복지국]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선생님과 미팅, 세부 일정을 정했습니다.
- 국제캠퍼스에 1,2분기 활동보고 플래카드를 부착했습니다.
- 국제캠퍼스에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홍보 플래카드와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 부회장이 성폭력 사건 자문했습니다.

도요일 PM6 슬라비.

대주목요일 저녁.

장인위 세미나.



여학생 하네이바인들과. 캠퍼. 란영희-슬라비?! 맛.힙.

두리반.

예약?!

6월 18일 (목)

- [정책국]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지원자들에게 OT에 대해 공지했습니다.
- 부회장이 장애인권위원회 종강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6월 19일 (금)

- [미디어홍보국]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홍보물과 지원 링크를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 [생활복지국]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장소 대여를 완료했습니다.
- 회장이 성폭력 사건 자문했습니다.
- 부회장이 성폭력 사건 자문했습니다.

6월 22일 (월)

- [재무국] 2분기 결산을 완료했습니다.

6월 23일 (화)

- [미디어홍보국] 결산 보고를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 제28차 다시 봄 회의 진행했습니다.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OT 진행했습니다.

6월 24일 (수)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에 연서했습니다.
- SNS 상의 성폭력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내부 논의했습니다.

6월 26일 (금)

- 부회장이 장애인권위원회 세미나 기획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6월 27일 (토)

- 회장이 대학생 여성주의자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6월 28일 (일)

- 회장과 집행부가 2015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했습니다.

6월 30일 (화)

- 제29차 다시 봄 회의 진행했습니다.
- [생활복지국]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관련, 체육관 사전 답사했습니다.
- [정책국]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장소 선정 및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 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 학생회비 TFT에 참석했습니다.

7월 2일 (목)

-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 / 학회 지원 프로젝트 <우리 한번 만나 봄> 미팅 진행했습니다.

[첨부자료1] 학내·외 성폭력 제보 / 사건 접수 활성화 계획안

리뷰 - 일괄
대부분들 - 배우려.

사업명	학내/외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가칭)		
담당국	정책국, 미홍국	협력부서	
학내 관계부서			
진행날짜	9월 캠페인		
사업의도	1.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에 의거할 때 어떤 사안들이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이해를 돕는다. 2.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의 세부 규정에서 대다수의 학우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점을 널리 알린다. (예) 가해자와 피해자 중 단 1인이더라도 현재 연세대학교 구성원(교수, 교직원, 학생)인 경우 전문 상담센터에 상담 및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헌법의 친고제 폐지와 맞물려 명백한 가해가 인지되었을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의 주변인 역시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공간적으로 '학외'에서 일어난 사건도 '내부 구성원'의 가해 또는 피해가 있다면 사건접수가 가능하다.)		
대상			
홍보방향	-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에 FAQ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게재 (방학 또는 학기 초) - 플랑 디자인 후 9월 포럼 홍보 플랑과 함께 뽑아 부착.		
진행내용			
예산	- 콘텐츠 작성 노동력, 일러질 노동력. - 플랑 인쇄 비용		
예산 문제점	- 소모적인 논쟁 촉발 가능성 ex) 나는 OO가 쿼어문화축제 사진 sns에 올린 거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것도 신고 되나요? - 아무리 열심히 카드뉴스를 구성해도 학내/외 성폭력의 세부적인 것들을 다 규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때 우리가 예시로 내세운 사례만이 '접수 가능한 사건'으로 학우들에게 인지될 가능성 (제한적으로 인지될 가능성)		

→ 형법

센터

★ 메일

학칙+형법+입장 알고
국민에게
작성해야

지나성과
얘기 나누고
피드백 받은 편지

스티커

실관계 애매한 것들 정리할 필요.

- 학칙 세부사항과 성평등 센터의 입장 차질 없이 잘 검토할 필요.

피드백에 있어 또 하나의 주체인 성평등 센터와 많은 논의 필요.

- 학생들에게 논지당을 '치외법권' 지닌 '신고 기관'으로 인지시킬 우려에 대한 논의 (우리가 아무리 논지당은 신고기관이 아니라 접수 기관 / 상담 기관이라고 알리는 것과 무관하게, 결국 대다수의 학우들이 논지당을 신고 기관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라면 그냥 많은 사안을 사건화할 수 있다고 알리는 편이 나을까?)

참고. 카드뉴스의 아주아주 러프한 예시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 것이라면 더 줄이는 게 좋을 듯 하다.)

Q: 학생 사이의 성폭력 피해만 접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 학칙에 의거하면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에 의거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단 1인이더라도 연세대학교 구성원(교수, 교직원, 학생)인 경우 모두 전문 상담센터에 상담 및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성폭력 사건은 피해 당사자만 사건 접수가 가능한 거죠?

A: 아닙니다. 주변인도 가능합니다.

Q: 동성 간 성폭력도 사건 접수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여자선배가 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했어요. 저는 남자인데 이것도 사건 접수 가능한가요?

A: 네. 당연히 남성도 성폭력 피해를 인지했으면,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Q: 학교 외부의 성폭력도 사건 접수 가능한가요?

A: 네. 피해자가 우리 학교 구성원이면 가능하니까요.

Q: 저는 타대생인데 연대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사건 접수가 가능한가요?

A: 네. 가해자가 현재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구성원이라면 가능합니다.

Q: 과동기로부터 sns로 성희롱을 당했어요. 이런 것도 사건처리 가능한가요?

A: 정황과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학내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 "학내/외" 성폭력의 개념 규정을 여성주의의 언어가 아닌 학칙에 의거해 정리할 필요. 사

조용한 것들
기관이 있어요.

- 5 -

교수
대상
리플렛

기타의도
강리

중요한 것은 사건이라 아니라 예방.

성폭 불매감이나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물어보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곳.